



유리시미II·매킨토시사 M270 스피커를 구비한 클래식 감상실 '다락+'

<클래식 음악감상실 '다락' 제공>

다채로운 클래식 '다락+'에서 감상해요

취재를 하며 신청곡을 넣었다. 열가의 '첼로협주곡'이다. 은은한 조영 아래 늦가을 밤 듣는 목직한 첼로 소리에 마음이 차분해진다. 아마도 이 곳에 한번 발을 들인 클래식 애호가라면 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듯하다. 최고급 오디오 시설을 갖춘 이곳에서, 계속해서 또 다른 곡들이 듣고 싶어질 테니.

지난 2010년 광주시 동구 학동에 문을 연 '클래식 음악감상실 다락'은 지역 클래식 음악계를 풍성하게 해왔다. 다락의 집중 클래식 강좌인 '다락 아카데미'를 다녀간 사람은 1000여명이 넘는다. 유명 연주자를 초청해 진행하는 '다락 하우스 콘서트'는 트럼페터 성제창 서울대학교 교수를 초청한 15일 공연으로 95회를 맞는다. 조현영·서현일·이인영 피아니스트 등이 강사로 참여한 피아노 강좌, 유희민 소프라노가 함께 한 오페라 강좌, 그리고 구지훈 강사 등이 나선 미술강좌도 열렸다. 그밖에 서울과 형가리, 네덜란드 등으로 해외 클래식 투어를 떠나는 등 광주의 새로운 클래식 향유 문화를 만들어왔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이들이 반길만한 공간이 이번 주말인 16일 문을 연다. '다락'을 운영하는 김명선 대표가 자택 건물 1층에 오픈하는 '다락+'(광주시 남구 행암동 620번지)다. 기존 다락이 강좌, 콘서트와 함께 정해진 시간에만 음악을 들을 수 있었던 데 반해 이번에 문을 여는 '다락+'는 방문객이 자유롭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클래식 음악 감상실이다.

건물 외관에는 김 대표가 직접 선정한 카리스마 넘치는 마에스트로 카라얀, 바이올린 여제 안네 소피 무터, 떠오르는 첼리스트 솔 가베타의 사진이 붙어 있다. 원목으로 마감한 공간에 자리잡고 있는 건 육중한 두 대의 스피커다. 오랫동안 전 세계 오디오 잡지의 표지 모델을 장식했던, '천사의 소리'로 유명한 프랑스 자디스사 '유리시미II 스피커'와 '제우스의 소리'로 명성을 날린 미국 매킨토시사 제품으로 두 회사의 최고급 모델이다. 특히 '유리시미II'는 강릉 참소리축음기&에디슨박물관 등에 비치된 제품으로 이 스피커의 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에서 오디오 애호가들이 김 대표 집을 방문하곤 했다.

'다락' 김명선 대표 행암동 16일 오픈 유리시미II·매킨토시 스피커 구비 주6일 오후1~10시 오픈...30석 규모 신청곡·DVD 명연주 실황 등 들려줘



클래식 음악감상실 '다락+' 건물 외관

김명선 대표는 "새롭게 문을 여는 다락+가 바쁜 일상 속에서 쉬고 싶은 분들,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이 자유롭게 오셔서 편하게 머물다 가는 공간으로 자리잡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락 홈페이지를 통해 듣고 싶은 음악을 신청하고 감상을 원하는 시간 등도 올릴 수 있다.

김명선 대표는 "새롭게 문을 여는 다락+가 바쁜 일상 속에서 쉬고 싶은 분들,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이 자유롭게 오셔서 편하게 머물다 가는 공간으로 자리잡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락 홈페이지를 통해 듣고 싶은 음악을 신청하고 감상을 원하는 시간 등도 올릴 수 있다.

밤 10시까지 운영되며 따로 신청을 하면 오전 10시부터도 감상을 할 수 있다. 또 CD와 최고 사양 음원을 통해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으며 다락에서도 인기가 높은 DVD 명연주 실황 감상하는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밖에 감상실을 찾는 이들이 듣고 싶은 신청곡을 들려주며 자신이 갖고 있는 CD를 직접 가져와 들을 수도 있다. 입장료는 1만원으로 무악 커피 또는 음료를 제공한다.

김 대표가 '다락+'를 오픈한 건 오랫동안 다락을 찾았던 한 회원에게서 출발한다. 사실, 다락이 특정 시간에만 문을 열면서 "자유롭게 음악을 듣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기기 관리 문제 등으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 몇개월 전 한 회원이 조용히 와서 말을 건넸다. "다락을 자주 찾던 친구가 세상을 떠났는데, 다락에서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고 접할 수 있어 너무 행복했다고 감사의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는 전언이었다.

김 대표의 가슴이 절렁했다. 가끔 음악을 듣고 싶다고 말하던 그 회원의 모습이 떠올랐고, "아, 내가 좀만 더 빨리 마음을 먹을 걸"하는 생각이 들었다. 착잡한 마음에 몇날을 고민하던 그는 즉시 실행에 옮겨 클래식 감상실을 준비했다.

김명선 대표는 "새롭게 문을 여는 다락+가 바쁜 일상 속에서 쉬고 싶은 분들,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이 자유롭게 오셔서 편하게 머물다 가는 공간으로 자리잡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락 홈페이지를 통해 듣고 싶은 음악을 신청하고 감상을 원하는 시간 등도 올릴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장복수 작 '어름이 오는 소리'



28일까지 '염색과 회화가 만나다' 전

한국창조미술협 광주전남회원전, 나주천연염색박물관

한국창조미술협회 광주전남지회(회장 장복수)회원전이 오는 28일까지 나주 천연염색박물관 기획 전시실에서 열린다.

박물관 기획전시로 마련된 이번 회원전의 주제는 '염색과 회화가 만나다'.

이번 전시에서 50여명의 회원들은 한국화, 서양화, 조각,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고재문 작가는 기묘한 산세와 쏟아지는 폭포 물줄기를 수묵 채색으로 표현한 '바다'를 선보이며 김은진 작가는 팝아트적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화'를 전시한다. 또 박영호 작가는 올해 100주년을 맞은 3·1 운동을 소재로 한

'기미년 3월'을, 이재진 작가는 먹의 농담이 옷이 드러나는 수묵의 매력이 느껴진 '설악산에서'를 선보인다.

그밖에 강근선·곽미녀·김성권·김영일·양정태·오세정·차숙자·최찬수·홍성국 작가 등이 참여해 남도의 풍광과 동백·복숭아꽃·백합 등 꽃 등을 소재로 작업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기획전은 천연염색을 주요한 소재로 삼아지는 폭포 물줄기를 수묵 채색으로 표현한 '바다'를 선보이며 김은진 작가는 팝아트적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화'를 전시한다. 또 박영호 작가는 올해 100주년을 맞은 3·1 운동을 소재로 한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도립국악단 창극 '민초의 노래' 공연 모습

호남의병들의 활약 '민초의 노래' 무대에

전남도립국악단 창극 공연, 13일 영광예술의전당

전남도립국악단의 창극 '민초의 노래'가 13일 오후 7시 영광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서울시와 전남도가 주최하고 광복회와 (사)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작품은 지난 4월 초연됐던 '개벽-민초의 노래'를 재정의한 작품으로 1907년 정미의병 당시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의병장 김태원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호남의병의

업적과 민초들의 활약을 그리고 있다.

작품은 민초들의 활약을 극 전면에서 내세웠으며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의병'이란 이름으로 맞서 싸운 선열들의 업적과 구국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김태원 대장의 수양딸 민초와 의병 김종석과의 사랑이 절절하게 묘사됐으며 일제에 항거하는 호남의병들의 의지가 스펙터클한 전투장면으로 표현됐다. 무료 관람. /전은재 기자 ej6621@

광주대 음악학과 졸업연주회 11~13일 호심관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음악학과 제23회 졸업연주회가 11일부터 13일까지 학교 호심관 3층 소강당에서 열린다.

광주대 음악학과는 11일 피아노전공 연주회를 시작으로 12일 성악·실용보컬 전공, 13일 관현악 전공 공연을 오후 7시에 각각 갖는다. 전공별로 3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졸업연주회에는 예비 졸업생 25명이 참여한다.

광주대 음악학과는 지난 1994년 창설

된 이후 전문 음악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또 교수와 학생이 함께하는 재능 나눔 콘서트와 지역민을 위한 가족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문화향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음악학과 김정아 학과장은 "지난 4년간 학생들이 갖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이번 졸업연주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아카데미' 12일 강좌 '예술가와 나이' 이연식 미술사학자 강연

광주시립미술관이 '그림 속 삶 이야기'를 주제로 주최하는 '제2기 광주시립미술관 아카데미' 마지막 강좌가 열린다.



12일 오후 3시 미술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는 이연식(사신) 미술사학자가 '예술가와 나이'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 씨는 이날 강연에서 '요절한 천재나 장수한 거장이나' 등을 내용으로 예술가의 생애에 따른 작품 세계의 특징과 개성에 대해 들려줄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후,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과정에서 미술이론을 공부한 이 씨는 '예술가의 나이들에 대하여', '이연식의 서양미술사 산책', '미술품 속 모작과 위작 이야기' 등의 책을 펴냈다. /김미은 기자 mekim@

프랑스어권 문화속으로 전남대 13~15일 '프랑코포니 문화제'

프랑스어권 국가들의 문화를 소개하는 '프랑코포니 문화제'가 열린다.

'프랑코포니'란 프랑스어를 모국어나 행정어로 사용하는 프랑스, 캐나다 퀘벡을 비롯해 벨기에, 스위스 등 유럽과 북미지역, 아프리카 등 모두 50여개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를 일컫는다. 이들은 자국 내에 독특한 프랑스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전남대는 오는 13~15일 '프랑코포니 문화제'를 개최한다. 전남대 인문대학(학장 류재한)과 불문학과·프랑스문화지역학연구소·유라시아연구소는 이번 '프랑코포니 문화제'를 통해 이들 문화를 알리는 등 프랑스어 사용지역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기로 했다.

첫날인 13일에는 인문대 김남주홀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이야의 밤엔 사랑이 필요해', '키리쿠

와 마녀'가 상연된다.

14일 오후 1시30분에는 예술대 지음홀에서 밴드 트레봉봉(TRESBONBON)이 아프리카 음악과 문화를 토크 콘서트 형식을 통해 소개한다. 오후 3시에는 김남주홀에서 '한국 내 프랑코포니 문화의 확산'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린다.

15일 오후 6시에는 인문대 3호관 소강당에서 연극 '알라딘'이 상연되고 '노르르담 드 파리' 메들리송 등이 펼쳐진다.

이밖에 문화제 기간에는 인문대 3호관 앞에서 프랑코포니 지역음식 시식회(벨기에 와플, 루안다 커피 등), 해나체험(다양한 문양 체험), 퀴즈쇼가 인문대 1호관 로비에서는 퀘벡의 사계(四季)를 다룬 사진전도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신양파크호텔 12월 송년모임 특별 감사이벤트

한 해를 마감하는 귀하의 소중한 모임, 귀하를 위한 특별 혜택을 준비하였습니다.

12월 송년모임 혜택 (연회행사 시 적용)

- 각 연회장 메뉴 10% 할인
- 음료·주류 50% 할인
- 객실 이용권 증정
- 현수막 1ea 무료제공 } ※50명 이상 행사시 적용
- 빔프로젝트 무료제공

신양파크호텔 휘트니스클럽 특별회원 모집 [개인 (월) ₩300,000원] - 회원 특전 -

-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료이용
- 레스토랑 이용시 10% 할인
- 객실 이용시 50% 할인
- 요가, 에어로빅, 수영 단체레슨 무료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문의 및 예약 ☎ (062)221-4101~3, 228-8000